조선

미국 원유생산량 최대치 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3. 9. 10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Oil market 변화로 해양산업은 속도조절 구간에 진입

미국 원유생산량은 지난달 말 762만 배럴/일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미국원유 생산량은 2년 전인 '11년 8월과 비교해 정확히 200만 배럴/일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원유 수입량은 135만 배럴/일이 줄어들었다. 미국 원유수입량은 올해 평균 787만 배럴로 지난해 평균 수입량 865만 배럴에 비해 9.4%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 증가폭은 전년대비 2.7%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미국은 Tight Oil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수입량 감소를 상쇄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해양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원유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PEC 국가들도 원유 생산량을 쉽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해양산업은 속도조절 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기대되었던 규모가 큰 해양프로젝트의 발주 수요는 '15년 이후로 지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Tight Oil 생산량 증가의 수혜는 Product, LPG, Chemical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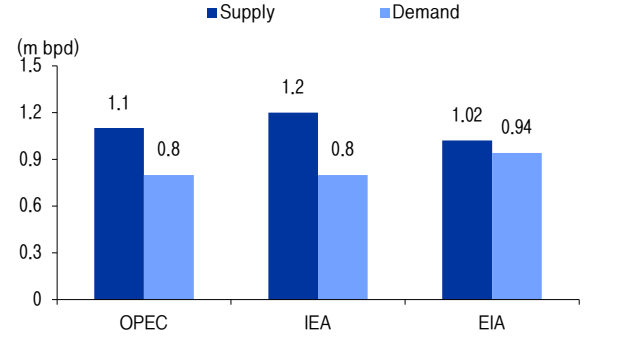
미국 Tight Oil 생산량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Tight Oil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Oil major들도 Tight Oil 분야에 투자와 관심을 늘리고 있다.

Eagle Ford, Bakken에 이어 Permian basin에서도 Tight Oil 생산량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Permian basin에서 하루 기준 1백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ConocoPhillips, Apache Corp, Chevron이 이미 이 지역 Tight Oil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Oil market 변화로 해양산업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Tight Oil 생산량 한계를 경험한 후 해양산업을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WTI가 높은 수준이 유지될수록 Tight Oil 생산량은 더욱 늘게 될 것이므로 Product, LPG, Chemical tanker 운송수요와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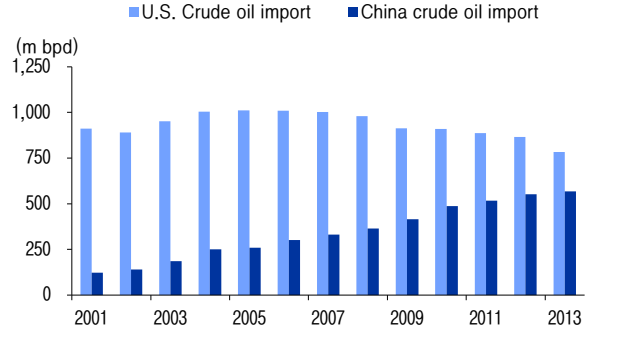
연초 이후 Offshore 보다 Product tanker 발주가 더 크게 늘었고 선가마저 상승하고 있다. 곧 LPG선과 Chemical tanker 발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선가 역시 상승할 것이다.

[그림1] Incremental Crude Oil Supply vs. Demand Estimates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Trends of U.S. and China Oil Imports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